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64호 【루게 제24577호】 주제103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황병서 동지, 변인선 동지, 최룡해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제287대련합부대와 려도방어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려도방어대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은 2012년 4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섬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로부터 지난 2년간 싸움준비완성과 전투력강화를 위한 투쟁을 즐기치게 벌림으로써 방어대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며 나무숲이 울창한 섬을 바라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방어대에서 나무를 많이 심는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일매지게 뒤야놓은 병영구내길을 걸으며 휴양소에 들어서는데는 것만 같다고 기뻐하시였고 싱싱하게 자란 살구, 감을 비롯한 갖가지 과일나무를 보시고서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수리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훌륭히 실현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도표식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이 세상에 없으며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어야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자면 그들이 TV와 인민군신문, 혁명적인 소설을 비롯한 도서들을 보면서 당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병사원, 무난방남새은실, 버섯재배장, 화초은실을 비롯한 후방경리시설들과 직속중대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머니 마음으로 보살펴주시였다.

병사원 식당의 식탁에 차려놓은 갖가지 음식들과 가마에서 펄펄 끓고있는 고기국을 보시고 예고없이 찾아왔는데 정말 요란하다고 하시였으며 풍농사를 잘하여 군인 일인당

매일 250g의 풍음식을 먹고있는것은 좋은 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담한 정각이 솟아있는 단백풀서식장과 동물사에서 육질거리는 오리, 계사니, 토끼, 칠면조들을 보시고 대단하다고, 방어대의 온실과 동물사들은 마치 식물원, 동물원같다고, 이것만 보고도 후방토대가 그촌하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려도방어대는 싸움준비의 견지에서는 불침견함, 군인생활의 견지에서는 나무랄데 없는 자랑할만 한 멋쟁이섬이라고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령도에 의하여 방어대가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단호히 짓부실수 있는 무적의 전투대로로 장성강화될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방어대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령군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군인들이 물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서 군사복무를 하지만 수령님과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전투진지를 지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군무생활을 더 잘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방어대의 전투임무수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방어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이 충포성이 울리

지 않을 때에도 늘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려도방어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려도방어대는 당중앙의 드락과 잇닿아있는 동해판문의 전초기지이며 섬초소군인들은 조국수호의 맨 앞장에 서있는 문전보초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려도방어대에 나서는 중요한 전투임무는 섬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침의 전함으로 확고히 전면시킴으로써 원수들이 사회주의조국땅에 침략의 발을 절대로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들속에서 신병교양, 계급교양, 애국주

의교양, 도덕교양의 4대교양을 참신하고 힘있게 벌리며 그들이 자나깨나 싸움마당에 마음을 두고 훈련으로 날을 밝히고 새날을 맞게 함으로써 훈련을 생활화, 습성화, 체질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인회관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실래를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을 잘 꾸렸으며 직관물들을 군인들의 심리에 맞게 다양하면서 특색있게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사적관, 박물관을 돌아보는것만 같다고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병사들의 정치사상적힘보다 더 강한 무기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동해안전방초소를 지키고있는 려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려도 방어대가 당중앙에서 좋다고 한것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훌륭히 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곳 부대는 당의 군사정책이 가장 정확히 집행되고있는 본보기단위, 전군이 따라배워야 할 전형단위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 정치사업성과의 비결은 해당 부대 지휘

관들에게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이곳 방 어대장은 일욕심이 대만한 이악쟁이지휘 관, 전군의 지휘관들이 본받아야 할 전형이라고 내세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공화국영웅인 방어대 장 천재권동무와 부대정치위원회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것을 친히 제의하시였으며 부대정치위원회에 현지에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직접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시였다.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려도방어대의 전체 군인들과 가족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격정의 환호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대해같은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고야 말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눈물속에 <만세!>를 부르는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오래도록 답례를 보내시 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한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2일 중앙로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김정하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직맹원들,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근로단체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공선일, 김일성종합대학 직맹위원장 리용범, 김정숙평양직공장 로동자 리명금이 토론했다.

보고자와 토론회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하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조선속도창조의 불길기 새치게 타고르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제 53(1964)년 6월 19일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조선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인도하는 강위력한 전투적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통일단결된 혁명적인 당, 전당이 인민들속에 들어간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겠다고 말하였다.

사상중요시책을 제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정신크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시였으며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광복정치로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시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하시어 혁명의 주체를 반석같이 다지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시고 새 세계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퍼주시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사회주의 문화건설의 새로운 장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한 근본담보로 마련해놓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직업동맹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직업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저작들을 발표하시어 동맹을 당의 선군령도에 끌

이 충실한 전투대로 강화발전시켜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회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사상과 위업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것에 해당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직맹원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장군님의 유훈을 무조건 결사관철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우리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결사옹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원수님과 팔

을 끼고 어깨를 결고 생산운명을 함께 하는 참된 전우, 동지가 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전선을 틀어쥐고 국방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으며 인민군대원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군민대단결을 더욱 철결같이 다져나간데 기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회자들은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 따라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높이 추켜들고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2일 안악군 오곡리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태섭 황해남도당위원회 비서, 판계부민 일꾼들, 안악군의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안악군 농근맹위원장 류명일, 오국형농촌장 관리위원장 황윤남,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장원 김춘화가 연설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을 비롯한 천만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새로운 조선속도창조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것은 우리 당의 전투력을 비약히 강화하고 백두산을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당 김일성주의의화를 당건설의 총적목표로 규정하시고 당을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끌림이 충실하고 강한 조직성과 규율성,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혁명의 위력한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하에 전당과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가 실현되고 우리 혁명대오는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수령결사옹위정신에 기초하여 하나의 혼연일체로 튼튼히 다져졌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을 강위력한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업적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토대로 길이 빛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위업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고도록 하신것은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모든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이 일련단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폭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 선군혁명동지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실감에 새기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태세 발표 50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일과목표를 기어이 정령하며 추산물생산과 온실남새,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여 더 많은 고기와 남새, 버섯이 인민들에게 차려지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과 일꾼들이 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들끓는 포전에서 화신식정치사업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우리 당의 위업을 앞당기는데 기여할것을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사업을 시작하신 50돐을 축하하는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50돐을 따라 수놓아온 천만민이 령군님의 령을 따라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이 불려일으키는 폭풍같은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대국주의는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입니다.>

물결위에 부러진 은구슬을 모아 밤하늘에 띄우려는가 강북편에서 분수가 오색명동한 조영속에 키높이 치초아오르는 강계의 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건만 공훈국가합창단공연은 본 자강방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속에 잠들지 못하며 밝은 창가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가고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자 우리는 9월방직공장 초급원서 남창애와 자강도에출단 단장인 장봉진 그리고 자강군 무덕현 동농장 전 관리위원장인 한달화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이런 우리는 공훈국가합창단공연에 대한 자강도인민들의 높은 관람열기에서 큰 충동을 받았다.

장봉진:자강도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부터 공훈국가합창단을 선군혁명의 나팔수로, 미더운 동지로서 여기며 그들의 노래를 전진가로 부르며 투쟁하여왔다.

장자강물결위에 별무리 흐르고 그리움의 노래 끝없이 울려 퍼진다

그에서 뒤늦게 온갖 공연을 보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직접 만나 고마움의 인사를 하고싶어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있다.

기자:이런 공연에서 관원악과 노래편곡 <태양을 우러러 부르는 노래>가 관중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장봉진:정말 이 종목은 우리 자강도인민들의 가슴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불러 일으키고 영원히 잊을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세계를 펼치고있다.

우리 자강도에출단에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의 령도가 뜨겁게 어려있다.

1970년대 우리 예술단 공연을 보아 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공연을 아주 잘한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100(2011)년 4월 우리 예술단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정책적대가 뚜렷하고 시대정신이 내뻗치는 공연이라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바로 그날

공 연 의 나 날 에

공연무대에 노래 <자강도는 내 나라의 자랑도인세>의 첫 선물이 울려 퍼진 장에서는 기쁨의 파도가 일어번졌다.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가는 길 힘내도 웃으며 가자!>라는 혁명적관주요호를 높이 들고 즐기니 투쟁을 벌려온 그날이 어려웠고 오늘날의 기쁨인 생활에 대한 회일이 복판처의 어찌 박수만은야만 만족할수 있랴. 음악이 고조될수록 약속이나 한듯이 일어나 덩실덩실 춤추가를 펼치며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강계정신의 창조자들의 이 열 정된친 모습이야말로 고난의 천 리를 가던 행부의 만리가 단산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일련단결의 우리 당을 받들어온 승리자들만이 펼칠수 있는 시대의 화폭이 아니라.

신 혁명군가를 심장깊이 새겨

안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투쟁속에서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가 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

글 쓴사자 자 수 사친 쓴사자 차 진 명

공훈국가합창단공연에 대한 자강도인민들의 관람열기가 한층 고조되는 속에 창작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게 되었다.

종목이 바뀔 때마다 재창하는 관중들에게 어떻게 한번 보는 노래를 다시 불러주겠는가. 관중들이 사랑하는 시대의 명곡들을 재창곡으로 더 나은 합창단시휘선원들의 제의에 온 합창단 선원들이 호응해나온다.

공연을 마치고 속속에 돌아온 합창단 선원들은 전투에 진입하는 바람에 웃음바다가 펼쳐졌고 앞서거니뒤서거니 하며 헤엄치는 선수들을 고무하는 응원소리로 떠들썩하였다.

즐거움 휴식의 한때를 보낸 공훈국가합창단 선원들은 자강도동계급의 뜨거운 정을 소중히 간직하고 공연활동을 더 잘해나갈 결의를 다지었다.

【조선중앙통신】

크나큰 사랑, 불타는 충정이 굽이치는 자강땅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인민은 문화예술은 천만민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불붙여넣는 전투적인 문화예술로 되어야 합니다.>

련일 진행되고있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은 보고난 도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이구동성으로 훌륭하다, 최고이다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공훈국가합창단을 자강도에 보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마운 은정에 눈시울을 적시었다.

강계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최창선동무는 공연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자강도동계급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기대가 얼마나 큰것인가를 가슴뜨겁게 절감

우리 나라 외무상과 가봉외무, 프랑수아사용국 및 지역통합상 회담

가봉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외무상과 엠마누엘 이쵸제 은봉페 가봉외무장 외무, 프랑수아사용국 및 지역통합상의 회담이 10일 외무성청사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 성원들과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상대측에서 가봉공화국 외무, 프랑수아사용국 및 지역통합상 대표상, 총서기, 외교관계담당 총국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사이

2014년 아시아청년페스티벌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 귀국

몽골의 울란바타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청년페스티벌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였던 우리 선수들이 12일 귀국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이란, 일본을 비롯한 10여개 나라와 지역의 남녀선수 230여명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쟁취하였다.

박진환 선수는 여자자유형 44kg급경기에서, 김현경 선수는 여자자유형 48kg급경기에서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여자자유형 51kg급경기에서 양순경 선수가 2위를, 남자고정형 50kg급경기와 남자자유형 50kg급경기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참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조일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12일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쌓인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전하며 우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 해방탑과 소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 진정

로씨야련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된 다음 참가자들은 소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해방탑을 돌아보았다. 대사관성원들은 또한 사동구역에 있는 소련군렬사들의 묘에 화환과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 단들 도착

황성각 고베조선고급학교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 단들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단장은 재일조선고급학교 교장, 교감, 교직원, 교직원들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 단들이 떠나 갔다

귀주조선고급학교 단장은 재일조선고급학교 교장, 교감, 교직원들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 조국방문 단들이 12일 비행기로 평양을 각각 단장으로

조선과 캄보디아정부사이의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캄보디아 왕국 정부사이의 2014-2017년 문화교류계획서가 12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조선측에서는 우리측에서 황호남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 일꾼들이, 상대측에서 쉐 씨와다 주조 캄보디아왕국 특명전권



제1위를 쟁취한 박진환, 김현경선수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애국애족의 가치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 때로부터 14년이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유언이 깃든 6.15 공동선언은 새 세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리정표이다.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출해하신다는 밝혀주시는바와 같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유일무이한 통일애국의 리념이며 민족공동의 사상적기치이다. 해외의 온 겨레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을 철저히 옹호하고 적극 구현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다.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불법공개한 범죄자들을 무진처분한 괴뢰패당의 반민족적죄행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얼마전 괴뢰패당이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사건에 대한 검찰수첩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범죄자들을 모두 무진처분하여 온 겨레의 커다란 격분을 불러일으켰다는 것만 판명하여 12일 보도 제1066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사건은 지난 2012년 괴뢰대통령 선거 때 《종북》소동을 일으켜 선거형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새누리당》만들거리를 이 청와대와 정 보원 등과 결탁하여 2007년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불법열람하고 공개하면서 로쿠현의 《북방한계선포기발언》을 조작하여 명목소동을 일으킨 극악무도한 모략선기이다.

이것은 남조선민주통일세력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아당들과 각계 층은 북남수뇌상봉담화록 공개를 《국가문란》, 《범죄행위》로 략인하고

《새누리당》관계자들을 비롯한 사건주모자들과 공범자들에게 대한 법적심판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므로 그 따라 검찰수첩이 진행되게 되었다.

그런데 1년나 끌어온 수사작업을 괴뢰정당은 사건주모자들과 《새누리당》소속 《국회》의원 김무성과 중국주재 괴뢰사 관영에서 비롯한 사회 각계는 법위협이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하고 북남수뇌상봉담화록열람을 불법행위인 괴뢰국회 정보위원장 서상기와 전정보원 원장 남재준, 1차장 한기철 등은 모두 무혐의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2012년 10월 괴뢰국정감사에서 로쿠현의 《북방한계선포기발언》은론난을 일으켜서 언론에 담화록내용을 공개한 《새누리당》소속 《국회》의원 최문현에게는 얼마 안되는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대치하였다.

반면에 로쿠현 《경원》의 청와대 안보실장 백중현과 안보정책비서관 조영준에 대해서는 북남수뇌상봉담화록초본을 삭제하

었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이워 증빙자료도 위급하고 정보원 전합개입을 폭로한 새정치민주연합소속 《국회》의원 장기영을 비롯한 4명에게는 정보원내직 연감감사건에 걸여 벌금형을 내리었다.

대우기 그처럼 불망나니질을 감행한자들을 무진처분하고 정 의와 진실을 주장한 사람들을 중죄인으로 취급하는것은 남조선이야말로 얼마나 거꾸로 된 세상, 불법무법인 판을 치는 암흑사회의인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사건은 국제외교사에 전례가 없는것으로서 무법정치의 남조선의 정치실정상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다 아나바와 같이 그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수반들사이의 담화록은 극비에 붙여지고있다.

괴뢰들의 《대통령》관련기록물들은 특급비밀문서로서 그 누구도 함부로 열람하거나 공개할수 없게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마구 내뒀다고 의

의한 무죄판결을 그 무순 《신문》이 뉘나 할것인 있었는 가 하는것이며 수뇌들의 담화록을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한것과 앞으로 어떻게 마주앉아 북남관계를 신의있게 풀어나갈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여 우리의 최고선언까지 거들면서 북남공동선언을 약탈하게 모독한 괴뢰패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의 각계 층은 북남수뇌상봉담화록 공개사건의 진상을 폭로하 가려모고 박근혜패당의 극악무도한 정치모략행위를 강력히 반대배격해 나서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사건 범죄자들을 엄정히 심판하여야 하며 수뇌상봉을 모독하고 북남선언들을 우롱하는 비열한 놈들을 당장 검거치워야 한다.

총련 제23차 전체대회 결정집행을 위한 총련 본부대회 진행

총련 본부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23차 전체대회 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전체대회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총련본부대회가 8일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총련 도교도본부 제23차대회가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황명 총련도교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대 회 에 서 는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23차대회를 앞두고 보내주신 축하문이 낭독되었다.

황명위원장 총련 도교도본부 제22기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그는 총화기간 조직을 강화하고 민족교육사업, 동포지원사업 등, 새 세대를 비롯한 동포들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데 대해 언급하였다.

앞으로 4년간의 주력사업계획을 위해 총련 도교도본부를 위대한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애

손교도 평도 해주시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애국애족의 진리를 이어간 것으로 제일조선인민들의 사랑과 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과 비약을 가져오리라 믿는 것을 확신한다고 언급하였다.

대 회 에 서 는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낭독되었다.

대 회 가 끝난 다음 총련 도교도본부 집행위원회 총련 제23차대회가 개최되었다.

총련 오사카본부부 제23차대회가 오사카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한편 니시노도, 사이다, 교토, 교시, 미야기의 총련본부에서도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 회 들 에 서 는 총련 도교도본부 위원장으로 황명, 오사카본부 위원장으로 부영우, 니시노도본부 위원장으로 고덕우, 사이다본부 위원장으로 조일현, 교도본부 위원장으로 김학부 등이 선임되었다.

또한 총련 효고현본부위원장으로 김춘현, 미야기현본부위원장으로 전도현이 새로 선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23차 전체대회 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전체대회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총련본부대회가 8일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총련 도교도본부 제23차대회가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대회는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황명 총련도교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대 회 에 서 는 경 애 하 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제23차대회를 앞두고 보내주신 축하문이 낭독되었다.

황명위원장 총련 도교도본부 제22기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그는 총화기간 조직을 강화하고 민족교육사업, 동포지원사업 등, 새 세대를 비롯한 동포들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데 대해 언급하였다.

앞으로 4년간의 주력사업계획을 위해 총련 도교도본부를 위대한 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애

단평 응 당 한 랭 대

갑갑게 집단을 빼내자가 뜻하지 않게 무참한 처욕을 당하는것을 갖고도 망신한다는 속담에 비유한다. 지난 4일에는 이른 지방지체선거에서 괴뢰정권자가 바로 그런 꼴이 되었다. 이날 박근혜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청할 때 남성이 자리에 서 일어나지 않은 채 거부하였다. 순간에 매사해진 박근혜가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화산한 미소속에 감추며 누구인가고 묻자 상대방은 여전히 태연하게 같이 참관인이라고 대답하였다.

절하고 뺨맞는 일은 없다고 하였는데 박근혜 얼마나 민심의 저주를 받고있었은 몸으며 청한 약속도 맹맹하게 거절당하였는가.

박근혜와의 약속을 거부하여 일약 여론의 초점 인물로 떠 당사자는 《세월》호참사사후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을 때 싸늘하게 물러섰던 행정간이 그 때 《대통령》이랍

서기국 보도

시고 뺨처럼 쉽게 약속을 청하는게 편해서 그랬다고 이유를 밝히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는 순식간에 《박근혜, 투표하려 갔었구나》, 《박근혜, 투표소에서 약속 거부당하다니 굴욕》 등의 야유기사가 쏟아졌다.

박근혜로서는 선거에서 안락으로 물러오는 저 들에게 대한 지지를 구걸하고 《불용》이라는 악명도 《소문》으로 바꾸어 실상을 노골적으로 불지 않는 연기를 한 모양인데 차라리 안하는것만 못하게 되었다.

주러 와도 미운 사람 있고 받으러 와도 고운 사람 있다고 하였다. 족제비도 낮적이 있다는데 하물며 《세월》호참사사과 같은 대참사를 빚어낸 살인마가 아직도 초상집을 노골적으로 마르지는 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아무데나 그 차거운 손을 내미니 웅덩이 대접을 받았는것이다.

허영민

일본에서 석노예범죄에 대한 사회와 배상을 요구하여 시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초불투쟁 전개

회의 《세진》, 전두환의 《정의사 회회》와 마찬가지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라고 단호하였다.

남조선에서 대형화사 계속 일어나는 원인은 리윤만 추수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정부》정책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또다시 규제완화행위를 하면서 《경제적 3개년계획》을 떠들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100만명의 생명을 받는데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 1000만명 생명을 모을 때까지 계속 전개해 나간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슨 《개조》에 대해 운운하고있는것은 리승만의 《명공통일》, 박정

에서 민주렬사들을 추모하는 의식에서 발언자들은 경찰하 로조관압과 재벌의 가혹한 착취에 항거하여 자결한 사람의 시신마저 유린하는 반인륜적행위를 감행했기에 대해 단호하였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거나 자결한 시신처럼 출근하고있으며 노동자들의 가슴에는 365일 추모의 리봉이 붙어있다고 절규하였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기업 리유에 밀려도 도외시되고 있는 현실을 끝장내기 위해 민중, 반민중, 반통일세력이 맞서 싸우자 투쟁할것이라고 그들은 연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초불투쟁 전개

회의 《세진》, 전두환의 《정의사 회회》와 마찬가지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간교한 술책이라고 단호하였다.

남조선에서 대형화사 계속 일어나는 원인은 리윤만 추수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는 《정부》정책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또다시 규제완화행위를 하면서 《경제적 3개년계획》을 떠들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100만명의 생명을 받는데 대해 언급하고 앞으로 1000만명 생명을 모을 때까지 계속 전개해 나간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슨 《개조》에 대해 운운하고있는것은 리승만의 《명공통일》, 박정